

역시 양학선

국가대표 선발전 男개인종합 1위

양학선(21·한국체대)이 2013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9월 30~10월 6일·벨기에 앤트워프) 과전 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에서 남자부 개인종합 1위를 차지했다.

양학선은 지난 3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선발전 끝에 남마루(14.100점)~안마(13.125점)~링(14.375점)~도마(15.500점)~평행봉(14.075점)~철봉(12.850점)의 6종목 합계 84.025점을 받았다.

전날 80.825점을으로 3위에 오른 양학선은 이를 함께 164.850점으로 2위 왕원영(한국체대, 163.725점)을 제치고 19명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양학선이 개인종합에서 1위를 한 것은 국내외 대회를 통틀어 처음이다.

도마에서는 1차 시기 때 자신의 독보적인 기술 '양학선'을 선보여 15.500점을 받았으나 2차 시기에서 시도한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고 뛰어 세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은 착지할 때 엉덩방아를 뛰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선발전에서는 1차 시기 점수만 들어가 양학선은 큰 점수 차로 도마 종목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양학선은 마루와 링에서도 각각 14.100점과 14.375점을 받아 유일하게 14점대를 기록하며 1위를 달렸다.

양학선은 개인종합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한 소감에 대해선 "개인종합에서는 항상 형들의 그늘에 가려 있었는데 1등을 해서 기쁘다"면서 "다리가 덜 차서 회전력이 부족했다. 무조건 일어선다는 생각으로 뛰었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양학선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갈 선수로는 2~4위를 한 왕원영(한국체대), 박민수(한양대), 배가람(경희대)과 9~10위인 김지훈(서울시청), 김희훈(한국체대)가 선발됐다.

여자 체조에서는 유망주 성지혜(17·대구체고)가 도마(13.350점)~이단 평행봉(13.775점)~평형대(12.875점)~마루운동(13.000점) 등 4종목 합계 53.000점을 받아 15명의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기계체조 간판 선수인 광주체고 출신 양학선이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태훈 보성CC 클래식 프로데뷔 첫 우승

김태훈(28·사진)이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 보성CC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 6년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훈은 4일 보성군 보성골프장(과거 72·70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리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출발, 5타를 줄이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태훈은 류현우(32·18언더파 270타)를 3타차로 제치고 올해 처음 열린 보성CC 클래식의 초대 웹피언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6000만원.

국가대표를 거쳐 지난 2007년 프로에 데뷔한 김태훈은 드라이버 입스(yips=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 극우경련 현상)가 찾아와 부진을



면치 못하다 6년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김태훈은 프로야구 초창기 해태 타이거즈의 거포로 활약한 김준환(58)

원광대 야구부 감독을 큰아버지,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상희(31)를 사촌누나로 둔 스포츠 가족의 일원이다. /연합뉴스



열린 여고부 플랫폼 다이빙에서 온연 어고 유리영(216.00점)에 이어 211.70 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광주체고 남상지(2년)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류민재 1m 다이빙 금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홍정석·박하름 은메달

광주체육과 수영팀이 제32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다이빙에서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은메달 3,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데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류민재(2년·사진)는 지난 1일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1m 스프링보드 다이빙에서 336.80점을

으로 경기체고 최민준(268.70점)을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류민재는 플랫폼 다이빙에서 은메달을, 3m 스프링보드 다이빙에서 동메달을 각각 주가했다.

또한 홍정석(3년)은 3m 스프링보드 다이빙에서 은메달을, 1m 스프링보드 다이빙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박하름(1년)은 지난 2일

예수회관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다음카페 광주청년아트센터 8월 28일(수) 전부 군산 선수단, 07:50 벽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회관 후문 08:24 8월 24일(토) 삼척 멍하니한 선물관, 23일 밤 10:30 염주체육관 출발(광주역, 비엔날레주차장) 차경 유경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아트센터 8월 29일(일) 08:0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29일(일)

▶광주청년아트센터 8월 29일(일) 08:0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29일(일)

▶광주도요산아트센터 8월 29일(일) 08:00 3608 4267, 010 3641 6153 8월 29일(일)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고 남상지(2년)는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김가을(경북체고)과 윤숙영(서울체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기동기자 song@